최근 시에 나타난 대안시학의 흐름들

-‘ 생태시학 ’과 ‘ 여성시학 ’

유 성 호 | 문학평론가 · 서남대 국문과 교수

이제 우리 시대는 숱한 문명사적 과제를 숨가쁘게 던져주고 있다. 그 과제의 근간에는, 근대주의의 이러저러한 미망을 극복할 수 있는 ‘ 새롭고도 오래된 ’ 가치의 복원에 대한 요청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우리가 이 글에서 살필 ‘ 생태시학 ’과 ‘ 여성시학 ’은 그 같은 대안과 복원의 기획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흐름들인 셈이다. 그 흐름은 아무래도 ‘ 생태시학 ’과 ‘ 여성시학 ’으로 불리는 두 가지 갈래일 것이다.

우리 시대 문학의 핵심적 화두

최근 우리 시단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아무래도 ‘ 생태시학 ’과 ‘ 여성시학 ’으로 불리는 두 가지 갈래일 것이다. 이들은 각각 ‘ 과학문명 ’과 ‘ 남성(가부장체제) ’이라는 주체 권력들로부터 오래도록 소외되어왔던 ‘ 자연 ’과 ‘ 여성 ’에 대한 근원적인 재인식을 통해 형성되고 전개된 흐름이다. 또한 이들은 ‘ 자연 ’과 ‘ 여성 ’에 내장되어 있던 원초적인 생명력과 에너지를 구체적인 문학작품 속에서 복원함으로써, 근대주의가 남긴 일정한 폐해를 비판하고 치유하려는 일종의 탈(脫)근대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성과 계몽 혹은 성장과 개발로 특징지어 지는 근대주의에 대한 전면적이고 폭넓은 반성에서 촉발된 이들 경향은, 비록 아직 형성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대안시학으로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 생태시학 ’이라고 불리는 일군의 경향은, 마치 1970 80년대에 우리 시단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 리얼리즘 시 ’의 성세(聲勢)를 연상시킬 정도의 활황(活況)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에 가득차 있는 뭇 생명들과의 호혜적인 공존 의식으로 시작되고 완성되고 있는 이 같은 경향은, ‘ 몸 ’의 시학이라든가 ‘ 에코 페미니즘 *eco - feminism* ’ 혹은 ‘ 자연 스스로 주체가 되는 어법 ’ 등을 통해 그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적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는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문제인 환경 위기에 대한 실천적 과제로서 제출된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제 생태시학에 나타나고 있는 실천적 지향은, 거의 치유 불가능 단계에 빠져 버린 ‘ 생태계 ’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온 인간의 욕망 실현 과정에 대한 근본적

인 반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연(自然)을 신성이 깃들인 생명체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 실현을 위한 자원(資源)으로만 생각해온 근대주의적 개발 논리에 대한 깊은 반성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경향이 이른바 '여성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시적 지향이다. 특히 모성의 따뜻함이라든가 역사적 타자(他者)로서 겪은 여성적 경험을 형상화는 데 많은 관심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 경향은,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억압받은 타자'들의 귀환 과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시학'의 위상과 가능성

이와 같이 근대주의에 밀려났던 타자들이 중심으로 복원되는 기획의 하나로 '여성시학'을 이해하는 것은, '자본 - 노동'이나 '백인종 - 유색인종''이성 - 욕망'의 관계처럼 '남성 - 여성'의 관계가 일정하게 '중심(억압) - 주변(피억압)'의 주종적(主從的)인 위계(位階)를 형성해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방식이다. 더구나 '남성 - 여성'의 차별적 위계는 늘 역사 과정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는 데, 최근 높아진 여성적 경험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점증(漸增)됨에 따라 이 같은 여성시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태''환경''여성''몸' 등의 대안적 범주들은, 그 반대편에서 중심의 위상을 구가했던 '문명''과학''남성''정신' 등에 의해 받아왔던 억압을 밀쳐내고 새로운 시적 주제인 '일상''욕망''죽음' 등을 시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 시대의 핵심적 화두로 진입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생겨났던 전환기적 흥분은 이제 차갑게 가라앉고 흔적조차 없어 보인다. 세기가 바뀌고 새로운 밀레니엄의 열렸다고는 하나 인류는 아직도 핵과 전쟁, 기아와 같은 모두의 공적(公敵)과 힘겹게 대치 중이다. 평화보다는 정복에, 치유보다는 성장에, 화해보다는 날카로운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세계관에 아직도 깊이 빠져 있는 것이 근대적 인간의 우매한 근시안인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기적 징후들과 함께 가장 심각한 위기 의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갖 자연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일 것이다. '생태시학'은 바로 이 같은 위기 의식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나타난 흐름이다. 그것은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평등한 권리와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과 모든 생명체들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상극과 배제보다는 상생과 포용의 세계관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생과 포용의 실천이 우리 문학 작품에 꾸준히 축적되면서 생태시학은 뚜렷한 하나의 주류 미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적인 기획과 실천이 우리 시대의 유력한 미학이자 윤리학으로 등장한 것은 얼추 셈해보아도 그리 오랜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 씌어진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간헐적인 인식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일정한 철학적 배경을 거느리면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들어 급속하게 증폭된 현대인들의 위기 의식을 파고들면서 형성된 경향이 바로 생태시학인 것이다.

그런데 생태시학의 구체적 성과는 소설보다는 시 쪽에서 훨씬 강렬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물

론 소설에서도 홍성원 이청준 최성각 이윤기 정찬 이승우 등의 깊은 문제 의식이 없는 바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성찰의 대상이 되거나 그를 통해 작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반면, 시 쪽에서는 매우 활발한 주류 담론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흐름들은 지난 시대에 이른바 '민중적 서정시'를 써왔던 이들(김지하 이시영 고재종 고형렬 백무산 이재무 안도현 등)에게서도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더니즘의 전위에 서 있던 이들(정현종 최승호 이성복 유하 등)이나 199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젊은 시인들(박용하 이정록 장석남 박형준 장철문 등)에게서도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매우 균질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과학 문명으로 대표되는 성장과 개발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생명력을 인간이 되찾아야 한다는 시적 전언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고 있다.

이러한 시적 성과가 일정하게 축적되자 비평계나 학계에서도 생태시학에 관련한 정치(精緻)한 평가와 해석을 잇따라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생태시학이 담론 차원을 지나 하나의 이론적 위상으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해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한국 지성사의 획기적인 표상이 될 잡지인 『녹색평론』이 발간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이때부터 생태시학의 비평적 실천은 가시화된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들어 그 『녹색평론』의 편집인인 김종철 교수가 자신의 경험과 이념을 꼭꼭 눌러 담은 에세이집 「생태적 인간과 시적 인간」을 펴내고, 거의 같은 시기에 도정일 교수가 「시인은 숲으로 가지 않는다」를 출간하면서 생태시학에 대한 비평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든다. 이어서 이남호 교수의 「녹색을 위한 문학」, 박이문 교수의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 최동호 교수의 「디지털 문화와 생태시학」, 신덕룡 교수의 「초록 생명의 길 1·2」 등이 계속 출간되면서, 문학에 있어서 '생태'의 문제는 매우 폭넓은 대중적 공론의 장(場)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생태적 인식은 김주연 교수가 「디지털 욕망과 문학의 현혹」에서 "생태계의 파괴와 생명의 존엄성 상실, 약화가 여기저기서 우려되고 있는데, 문학은 그 한복판에서 숨쉬고 있는 가장 분명한 생태계여야 한다. 나는 그것을 당위와 더불어 사실 속에서도 보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여지없이 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욱동 교수의 「시인은 숲을 지킨다」가 출간되면서 생태시학에 대한 실천 비평적 성격은 한층 강화되기에 이른다.

미국의 시인 게리 스나이더가 말한 "숲을 지키는 것이 시인의 임무"라는 표현에서 제목을 따온 이 책은, 도정일 교수의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를 강렬하게 연상시킨다. 비록 두 평론집의 제목이 서로 반대되는 표현을 담고는 있지만, 앞의 것이 역설적인 표현임에 비추어 볼 때, 두 책은 모두 '시인(예술가)'들이 최후로 지켜야 할 미학적 영역이 '숲(자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숲'으로 대변되는 '자연'의 위기는 우리 시대에 불어닥친 가장 구체적인 병리적 징후이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보려는 움직임을 문학 작품의 주제나 형상 속에서 살핀 결과가 이 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작품이나 비평에서 골고루 볼 수 있는 생태시학의 활발한 전개는, 하나같이 근대주의의 이데올로기인 '진보'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는 '자연'과 '우주'마저 타자로 몰아붙였던 지난 시대의 역사 과잉에 대한 일

정한 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성장 위주의 진보주의보다는 자연스러운 순환 체계 속에서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는 탈근대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생태시학은 이러한 순환론적 사유가 또 하나의 '신비주의(가령 애니미즘의 실체화, 인간 혐오, 탈역사주의 등)'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또한 생태시학은 '자연'을 완결된 심미적 구조로 보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야생 지역, 삼림, 습지, 산, 초지 등은 개발되어 도로로 덮여지고, 간척되고, 불태워지고, 지나치게 뜯어 먹혀, 계속 존재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카푸라의 말에서 유추되듯, '자연'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고 상처받았으며, 그와 함께 자체로는 자기중심적이면서 문화적 윤색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가변적 실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은 정태적이고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적응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실체이고, 인간 현상의 경험적 이해라는 근대 과학의 심층에 있는 조건 중 하나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태적 사유'의 문학적 실천에서는 기법의 새로움보다는 인식의 쇄신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상상적인 자연 친화보다는 어머니 · 대지 · 고향으로서의 자연의 근원성이 더욱 깊이 형상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전회(轉回)야말로, 근원적 조화와 일체의 세계를 지향하는 생태 지향 문학의 귀결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어휘를 버리고 '생태'라는 보다 더 일원화된 생명계 전체의 네트워크 개념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생태계의 가눌 수 없는 교란과 절멸이 진행되면서 생명체들이 대량으로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 이야만의 시대에, 모든 신성한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이 근대의 황혼에, 우리는 한 단계 깊어진 생태시학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 추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행해야 한다. 그럴 때 생태시학은 단조로운 자연 친화나 일방적인 심미적 예찬의 타성에서 벗어나, 현실적 구체와 풍요로운 접점을 형성하면서 대안시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생태적 사유'와 그 실천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윤리학이 될 것이다.

생태시학의 활발한 전개는, '자연'과 '우주'마저 타자로 몰아붙였던 지난 시대의 역사 과잉에 대한 일정한 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성장 위주의 진보주의보다는 자연스러운 순환 체계 속에서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는 탈근대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생태시학은 이러한 순환론적 사유가 또 하나의 '신비주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여성시학’의 실재와 미래

여성들이 주역으로 나서면서 형성된 문학적 실천은 1990년대 들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의 1차적 원인은 1980년대 들어 눈에 띄게 확대된 여성의 교육 기회나 사회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경험과 감각과 언어를 가지고 섬세한 내면 세계를 그려낸 ‘여성시학’은, 1990년대가 한국 여성문학사를 가장 풍요롭게 일군 시기였음을 확연하게 증거하고 있다.

여성시학이 경계해야 할 측면도 간단치는 않다. 하향 평준화된 유행 감각으로서의 여성적 소재들이나 오히려 반(反)여성적인 순종적 온정주의는 여성시학에서 적극 경계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시학은 ‘여성’ 혹은 ‘여성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숭배가 불러올 상투성의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단계에 이른 듯하다. 그것은 새로움이 범속화될 때 빚어지는 진부함과 상투성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문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작가가 노동자라는 사실보다는 작품 안에 반영된 노동자 의식이듯, 여성시학에서도 작가의 성별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여성적인 것’의 실체가 더 중요하다. 말하자면 설사 여성 작가에 의해 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이 ‘남성적인 것’을 더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성시학’에 포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때 ‘여성적인 것’은, 이를테면 생명의 순환적 질서에 대한 남다른 자각, 오랜 억압과 차별 속에서 전개된 여성의 역사, 수단으로 격하되어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차단당해왔던 여성적 ‘몸’의 재발견, 이성의 과잉에 의해 묻혀졌던 섬세한 감성의 개발, 역사주의적 시각에 의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일상성에 대한 관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촘촘하게 걸쳐져 있는 미세한 억압의 그물망을 ‘여성’이라는 눈을 통해 바라보고, 치유하고, 재구성하려는 문학적 구상이 바로 여성시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문학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성시학의 실제적 무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시인이나 작가 개인의 경험과 감각에 따라 다양하기 그지없는 표정과 어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몇몇 경향이나 흐름으로 개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정체성의 혼돈을 거듭하면서도 억압받은 타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 여성시학이 어느 정도 문학사적 망(網)으로 진입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같은 억압된 자들의 귀환은 오래된 ‘금기’로부터 갑작스런 ‘신화’의 영역으로 몸을 바꿔버린 우리 문화의 냄비 기질이 일정하게 반영된 일종의 기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성시학의 폭넓은 현상은 소설 쪽에서

도 이미 오래 전에 나타났다. 박경리 박완서 오정희 같은 탁월한 중진들이 이미 훼손할 수 없는 자신만의 미학을 구축하였고, 그 아래 세대가 좀 뜸하다가 1990년대 들어 은희경 신경숙 공지영 김인숙 공선옥 이혜경 하성란 전경린 조경란 배수아 차현숙 서하진 함정임 이화경 송경아 한강 등 가히 폭발적인 여성 작가들의 등장을 부른다. 이들의 작품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에 가 닿고자 하는 욕망과, 잃어버린 신성을 복원하려는 지향 사이에 두루 산포되어 있는데, 그 공통적 지향은 사회학자인 조혜정의 지적대로 " 여성 특유의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된 특질, 즉 억압받은 자로서의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 자녀 양육 능력, 타인과의 제휴 능력 및 사려 깊음 " 등에서 유래되는 미학적 성격이다.

또한 시 쪽에서는, 서정시의 자기 탐구적 성격과 감성적인 성격상, 더욱 활발하고 다채로운 무늬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출간된 시집들만 나열해도 그 목록은 참으로 풍요롭다. 버림받은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 실존을 시쓰기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통해 구성하고 있는 김혜순의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사라지는 것들의 순간적 아름다움을 섬세한 감각과 균형잡힌 형식으로 잡아들이면서 " 사랑이란 그 속성상 타자 속에서 타자를 위해 잃어버리는 것을 인정하는 불안한 상태 "(크리스테바)임을 증거하고 있는 나희덕의 「어두워진다는 것」, 오래된 영혼의 쓸쓸한 추억을 " 순한 시간 " 속에서 하나하나 거두어들이고 있는 허수경의 「내 영혼은 오래 걸어왔으나」, 화자 자신의 생의 내력을 ' 물 과 ' 구멍 의 원형적 이미지로 깊이있게 탐색해 들어간 김수영의 「오랜 밤 이야기」, 일상적 현실의 불모성을 냉소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심층을 통찰하고 있는 이선영의 「평범에 바치다」, " 아름다운 타자들의 연대 "를 꿈꾸며 탈식민주의적인 시적 기획을 선보이고 있는 김승희의 「빗자루를 타고 잘리는 웃음」, 다양한 패러디로 세상을 교란하면서 심미적인 감성과 활력까지 담고 있는 정끝별의 「흰책」, 일정한 종교적 상상력에 기초하여 지극하고 아름다운 상상적 미학을 세우고 있는 박라연의 「공중 속의 내 정원」, 통증과 치욕으로서의 생을 견디면서 가혹한 실존의 병을 앓고 있는 조용미의 「일만 마리 물고기가 山을 날아오르다」, ' 어머니 와 ' 딸 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병든 화자의 지극한 재생의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양선희의 「그 인연에 울다」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이진명 양애경 조은 황인숙 최정례 박서원 이경림 이상희 김정란 김소연 노혜경 김선우 등의 시적 작업은 우리의 눈을 잡아 매두는 깊은 자의식의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작품에서 줄곧 보이는 희생과 구원의 모티프, 잊혀졌던 여성적 사유의 재생 과정, 심미적 감각의 결 *texture*, 따뜻한 모성 같은 가치들은 1970 80년대의 거대이론에 짓눌려 있던 타자들의 목소리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들의 시에는 현대 사회의 폭력성과 일방적인 전향성(前向性)이 규정하고 있는 여성성 *femininity*이 얼마나 불구적인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미학적 항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강은교 천양희 문정희 등 중견 시인들까지 포함하면 매우 거대하고 지속적인 흐름이라 할 것이다.

여성학자 수잔 보르도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 과학 · 자본주의가 억압적인 가부장 제도를 더욱 정밀하게 강화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 시각은 ' 남성 - 여성 의 관계를 더욱 전투적인 대치로 몰아간다. 그러나 서구의 이 같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시각과는 달리 우리의 여성시학은, 상상력과 감수

성의 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그리고 상호 포용적인 시각을 기초로 함으로써, 근대의 역사가 '여성'의 식민화 과정이기도 했다는 자각보다는, 타자로 규정되어온 자기 안의 여성성(제도나 관행으로서의 '여성성'이 아니라)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시학이 경계해야 할 측면도 간단치는 않다. 하향 평준화된 유행 감각으로서의 여성적 소재들이나 오히려 반(反)여성적인 순종적 온정주의는 여성시학에서 적극 경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시학의 독자적인 장점인 항목들, 이를테면 섬세한 내면 세계의 묘사, 언술 방식의 타자성, 포용력과 상생의 정신 등은 희석되어버리고 다만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차원에서의 여성적 목소리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시학은 '여성' 혹은 '여성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숭배가 불러올 상투성의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단계에 이른 듯하다. 그것은 새로움이 범속화될 때 빚어지는 진부함과 상투성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새로움에 대한 의지도 반성적 갱신도 없이 관성적으로 펼쳐지는 피억압성의 강화는 가차없이 낡은 목소리로 떨어지게 되니까 말이다. 새로움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미학은 역사보다 냉혹하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경계하면서 여성시학은 이미지 · 기호 ·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온갖 복제품들이라든가, 남성적인 언어로 치장된 실용주의적 장치들, 그리고 가상 공간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의 짙은 운무(雲霧)들을 헤치고 자신만의 순금과도 같은 미래적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여성시학은 모성에 대한 과도한 긍정이나 서구 이론에 대한 일정한 강박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어둑한 심연을 응시하면서 역사와 일상, 욕망과 이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우리 시대의 대안시학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아날로그가 없는 디지털을 상상할 수 없듯이, 이러한 '근원'으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천착이 없이 이루어진 온갖 근대주의의 구축물들은 허상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고도 오래된 가치의 복원

이제 우리 시대는 숱한 문명사적 과제를 우리에게 숨가쁘게 던져주고 있다. 그 과제의 근간에는, 근대주의의 이러저러한 미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롭고도 오래된' 가치의 복원에 대한 요청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우리가 이 글에서 살핀 '생태시학'과 '여성시학'은 그 같은 대안과 복원의 기획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흐름들인 셈이다.

이들이 자신만의 특유의 활력을 보이며 전개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들도 적지는 않다. 정치적 폭력의 문제, 계급의 문제, 지역의 문제, 제국주의 - 식민주의의 문제 등이 그것들인데, 이는 물론 우리 문학이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주제들이다. 생태시학과 여성시학이 이러한 과제들과 깊이 연관되면서 풍부한 현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싶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단순한 중심 항목의 교체, 말하자면 과학 · 문명 · 이성 · 성장의 패러다임을 영성 · 자연 · 감성 · 치유의 그것으로 바꿔버린 개념적 차원의 변화에만 머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이와 같은 끝없는 자기 갱신을 통해 이들은 과학 · 정신 · 남성의 오래된 타자였던 자연 · 육체 · 여성을 재발견하고 표현하는 우리 시대의 불요불급한 대안 시학의 위상을 구축해갈 수 있을 것이다.